



#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리 4,6)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 † 주님의 평화

일본은 가을 기운이 한층 더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맑고 계신 소임, 잘 하고 계시겠지요.

우선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진, 쓰나미의 재해가 발생한 지역은 일본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과 같은 위도로 단풍이 아름다운 일본의 대표적인 전원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진,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초기에는 피난소에서 생활을 하셨지만, 현재는 가설주택으로 생활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쓰나미 재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가설주택을 고지대에 건설하였기 때문에 작업의 어려움과 함께 생필품 구매의 불편, 고령자 분들을 위한 의로서비스 제공이 원활치 못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고령자 분들은 가설주택으로 옮김으로 인한 고독감과 또 탁월지도 모르는 재난우려와 몇 달이 지나면 다가올 엄동설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초기의 집단 피난소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도 보도되곤 합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구는 아직도 접근

금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지역으로의 이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자녀의 장래마저 전망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자로는 차츰 냉각상태를 찾아가고 있으며, 미국도 접근금지 지역을 반경 20km로 재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대상 지구의 18세 미만 36만 명을 대상으로 ‘갑상선검사’가 시작되었지만, 평생 동안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사의 문제로 본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월 11일 발생한 재해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재해 중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이 재해에 대한 복구와 부흥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책의 검토는 현행 일본사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 인구감소로 인한 외교 정책, 경제정책, 에너지정책, 산업구조정책, 사회보장 정책, 국토정비계획, 재무재건계획 등 산더미같은 과제가 쌓여있습니다. 특히 대형재난에 대한 복구 및 부흥대책의 지원, 최근 급격한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체의 공동화(空洞化)현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상, 고용 기회상실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발 금융불안의 여파는 세계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고,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일본의 정치 정세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일본 정치의 혼란도 국민들의 큰 목소리에 놀려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해 직후 일본 국민들의 행동과 자세는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끈(絆)'이라는 모토로 일본국민 전체가 함께 행동하고 실천해 왔지만, 그 후의 복구·부흥의 지연,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방사능오염문제, 루머로 인한 피해, 피해보상문제 등은, '끈'의 고리를 점점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칭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해 직후부터 저희 성마리아병원은 장기간에 걸쳐 의료지원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활동으로 주님의 은총이 직원 개개인과 조직에게 용기와 봉사정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작년에 착공한 건축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년 이맘때쯤에는 준공 준비를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일본은 큰 변

혁의 시기를 맞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손길에 따르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협력과 지도를 요청드리며 제가 경영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새기는 성경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6-9절

“(여러분)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

## どんなことでも、 思い煩うのはやめなさい

社会医療法人 雪の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 † 主の平安

日本は一段と秋の気配を感じる季節となりました。皆様方におかれましてはご健勝で御活躍のことと存じます。

さて、3月11日に日本で発生致しました地震、津波、原子力発電所事故について報告致します。地震、津波の災害が発生した地帯は日本の東北部に位置していますが、ソウルと同じ緯度で紅葉が美しい日本の代表的な田園地域でもあります。地震、津波による被災された方々は、一旦避難所での生活を過ごされていましたが、現在は仮設住宅にて生活の場を移しておられます。しかしながら、津波災害の危険を回避するため地域の高台に建設されたため、就労への困難さ、日用品購入の不便さ、高齢者の方々の医療のアクセスの不備等が指摘されています。被災者の高齢者の方々は、仮設住宅への転居による孤独感、再度の災害、また数か月後の厳冬に対する不安感が生じており、集団的に避難していた避難所を懐かしむ声さえも報道されています。一方、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る放射能汚染地区は、現在でも立ち入り禁止の地域が設定されているため、住民の安全な地域への移住が生じています。特に、子供さんをお持ちの若い世代の方々は、将来設計の目途が立たず深刻な状況となっています。原子炉は徐々に冷温状態に移行してきており、アメリカ合衆国も立ち入り禁止地域を半径20キロと変更致しました。現在、対象地区の18歳未満、36万人に対し「甲状腺検査」が開始されましたが、生涯に亘る検査のチェックは「人」としての存在の問題として本人、家族に大きな負担となっています。

3月11日発生の災害は、近年の日本における最大規模の震災であります。現在、この震災に向けての復旧・復興策が検討されていますが、政策の検討は現行社会制度の抜本的な見直しの動きとなっております。今後の少子高齢社会、また人口減少下における外交政策、経済政策、エネルギー政策、産業構造政策、社会保障政策、国土整備計画、

財政再建計画等課題が山積しております。特に、大災害に対する復旧・復興対策の遅れ、最近の急激な円高に伴う企業の対策は、国内産業の空洞化、雇用の機会喪失となっております。さらには欧州における金融不安の嵐は世界全体に影響を及ぼし始めています。同様な金融問題は、韓国でも深刻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伺っています。過去数回日本の政治情勢について述べてまいりましたが、この数年続いた日本の政治の混迷も国民の大きな声に押されてやっと動き始めました。震災直後の日本の国民の行動、姿勢は高く評価されました。「絆」の標語で国民全体が行動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が、その後の復旧・復興の遅れ、原子力発電所による放射能汚染問題、風評被害、補償問題等は、「絆」の輪が徐々に弱くなってきているように思われます。福音書には現世のこれらの問題と同様な多くのことが述べられています。神様の助けを願いつつ歩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震災直後より私ども聖マリア病院は、長期に亘る医療支援活動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この活動は、神様のお恵みのもとに職員の個々人に、また組織に勇気と奉仕の精神を与えて頂きました。現在、昨年より着工致しました建築も順調に進展し、来年の今頃は竣工に向けての準備に取り掛かっていると思います。今後数年間、日本は大きな変革の時期を迎えると思います。皆様方との神様の御手による使命の遂行のために、一層のご協力とご指導の程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私が経営を行う際に常に心がけている福音書の一部を記載させていただきます。

### 使徒パウロのフィリピの教会への手紙

{皆さん}どんなことでも、思い煩うのはやめなさい。何事につけ、感謝を込めて祈りと願いをささげ、求めているものを神に打ち明けなさい。

そうすれば、あらゆる人知を超える神の平和が、あなたがたの心と考えを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守るでしょう。

終りに、兄弟たち、すべて真実なこと、すべて気高いこと、すべて正しいこと、すべて清いこと、すべて愛すべきこと、すべて名誉なこと、また、徳や称賛に値することがあれば、それを心に留めなさい。わたしから学んだこと、受けたこと、わたしについて聞いたこと、見たことを実行しなさい。そうすれば、平和の神はあなたがたと共におられます。

神に感謝